

몰카범·헤비업로더 등 570명 검거

경찰이 한 달 동안 사이버성폭력 사업 특별단속을 한 결과 30명 가까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다.

민감통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 수사 체계를 갖춘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 노하우가 쌓이고 불법행위 행태들이 파악돼 앞으로 수사가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진행 중이다. 1개월 운영 성과를 집계한 결과 모두 570명이 검거되고 28명이 구속됐다.

헤비업로더-웹하드 업자 간 유착 파악중

해외 사이트도 운영자 추적해 수사 진척

유튜브플랫폼을 단속한 결과 59명을 검거했고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헤비업로더 2명이 구속됐다.

민 청장은 "특히 헤비업로더나 웹하드 업자 간 유착관계도 파악해 수사 중"이라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우선 수사대상 절반 정도를 압수수색한 상태로 스

로 자진폐쇄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등 반향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민 청장은 "특히 수사가 어려웠던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를 통해 운영자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 방법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파리서 아프간 남성 흉기 난동으로 7명 부상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 9일 밤(현지시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리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테러 의심은 없다고 말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영국 관광객도 2명 포함돼 있다고 BFM TV와 파리 지방지는 전했다.

파리지역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파리 경찰은 흉기 난동이 파리 19구역의 한 극장 인근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 부상자들의 신원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범인은 칼 이외에도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파리지역은 전했다.

미 동부 연안, 허리케인 플로렌스 접근 비상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여러 주들이 급속히 강화하고 있는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접근으로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마이애미에 본부를 둔 미 국립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아침 (현지시간) 현재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대서양 남동부해안을 향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비상경비를 준비하고 도피로의 확보, 모래 주머니 채우기 등에 나서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해수욕장은 이미 폭풍우에 대비해서 사람들의 입수를 금지하는 빨간 깃발들을 내 걸었고, 대형 크루즈선과 해군 함정들도 허리케인의 경로를 피해서 대피 중이다. 주민들도 생수, 식품, 합판, 그 밖의 생활품을 사들여 사재기 하고 있다.

플로렌스는 9일 새벽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 규모로 세력을 강화했으며 지금은 시속 140km로 강화되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다. 10일에는 가장 위험한 허리케인의 규모로 세력이 커져 며칠 동안 그 상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현재 플로렌스의 위치는 버뮤다섬 남동쪽 1160km지점으로 시속 11km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동안 폭염으로 더워진 해수의 에너지를 끌어 올리게 되면 가장 위험한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이 된다. 미 기상청은 10일 쯤에는 최대 풍속 209km의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아직 세밀한 경로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13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 상륙할 것이라고 국립 기상청은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대서양 연안 중부지대까지는 허리케인에 대비하도록 주민들에게 경보를 내렸다. 이는 강풍만이 아니라 플로렌스가 곳곳에서 30cm~60cm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어 홍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폭풍우성 해일이 일어날 것도 예상된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플로렌스의 상륙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대책본부를 마련,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찰스턴에서는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지급하고 있으며 머틀 비치의 브랜드 배틀 시장은 아직 대피령을 내리기엔 시기 상조이지만 모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서 연금개혁 반대시위...300명 체포

러시아 전역에서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렸다.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전개된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경찰에 의해 지금까지 300명이 체포 구속됐다.

푸틴 대통령 정부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지만 강권 정치와 경제침체의 계속,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동시 시위는 시장 주지사 등의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산출하는 지방선거에 맞춰 반체제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인터넷 등으로 참가를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나발니는 3월 대선 보이콧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무단으로 주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상태이다.

나발니의 대변인은 당국이 반연금법 시위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나발니를 가졌다고 반발했다.

이날 시위에는 20~30대 청년층이 대거 참여했으며 경찰차기 "사회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는 공권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경고하는 속에서 "푸틴은 하야하라", "러시아에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금개혁과는 아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젊은층이 시위에 대거 가세한 데 배경으로는 푸틴 정부의 인터넷 정보통제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추석 금품 향응 특별단속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9월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임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란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구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상도유치원 파손부분 철거 10일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고추값 급등 속 수확철 맞아 절도 범죄 잇따라...농가 관리철저 필요

올 여름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고추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건고추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8) 씨를 구속하고, 공범 B(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해남군 화산면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건고추 60kg(시가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 씨 등은 훔친 고추를 판매, 생황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광주에서 차량을 이용해 화순 등 전남 일대를 배회한 사실 등을 확인, 여죄 여부를 추궁 중이다.

김정환 기자

또 A 씨의 집에서 고추를 전량 회수, 피해 농민에게 되돌려줬다.

지난달 28일 보성경찰서도 인적이 드문 밤 시각 고추밭에 들어가 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C(66)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11시 사이 보성 문덕면의 한 야산 고추밭에 들어가 익은 고추만을 골라 따 뒤 이를 차량에 싣고 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보성 지역을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고추를 훔친 혐의다.

C 씨는 훔친 고추를 자신의 집에서 건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 메르스 확진자 접촉 2명 특별관리

전남지역에서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는 2명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2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 등 총 2명이다.

이들은 메르스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0대 남성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직장이 전남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명을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고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감기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국가 지정 격리병동으로 옮기기 위해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김정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데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 서울특별시 | 고덕센터 1577-1000